완주드림

완주마을이야기 Since 2012 제103호



2021년 3월호

황운리 남쪽, 망표

볕이 나자 새벽 서리가 저항도 못하고 흩어졌다. 봄비를 만난 나무는 순식간에 개화했다. 주민들은 밭을 갈고 냉이를 캐고 페인트칠을 하거나 마을을 산책했다. 소양면 황운리 망표마을. 이곳에서 맞이한 계절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무쌍했다.

관련 기사 2~7면

2008년 철쭉이 예쁘게 핀 봄날, 전주에서 소양 망표마을로 들어온 이성용 어르신 부부가 산양을 돌보고 있다.



산수유 꽃 따라 **산책하듯 동네 한 바퀴**

정말 **봄이 왔네요**

■봄날은 흐린 뒤 맑음

밤새 내린 비가 오전까지 이어졌다. 용봉산 자락에 깃든 조그만 산사도 봄비에 젖었다. 대웅전 마루에 앉아 창호를 넘어 오는 예불소리를 들었다. 빗소리 풍경소리 독경소리가 산을 오르며 들끓었던 마음을 차분히 달랜다. 소양성당과 주사랑교회를 지나 생각 없이 가로질러 온 길. 성불사 이정표를 따라 차로 오른 산길은 충분히 좁고 급했다. 숨을 참고 마음 졸이며 올라 마침내 안전을 확보했을 때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에 안도했다.

소양초에서 소양천을 건너 직진하면 망표마을이다. 위성지도로 보면 용봉산의 봉황이 날개를 살짝 오므려 마을을 품고 있는 형상. 외길이라 길을 잃고 헤맬 염려는 없다. 2월말부터 3월초까지 몇 차례에 걸쳐 마을을 찾았다. 흐리고 맑은 날이 반복됐는데 비가 오면 마을을 구경하고 맑은 날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다.

굽은 허리에 뒷짐을 진 채장임(79) 할머니는 알갱이 비료가 든 쇠그릇을 들고 마늘밭으로 가고 계셨다.

"이것(비료) 쪼께 마늘밭에 주려고. 우리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생 겁나게 했어. 아들 셋 키우느라 전주 공장서 일 다녔는데 안 해본 일이 없네. 지금 허리가 안 좋아서 큰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어."

용연리가 고향인 채 할머니는 결혼 이후 망표마을을 떠난 적이 없다. 용연리 또한 소양이니 평생 소양을 벗어난 일이 없는 셈이다.

주민 이모(49) 씨는 채 할머니와는 달리 최근 마을로 이주했다. 서울이 고향인 그는 직장 때문에 20년 이상을 전주에서 살다 완주로 귀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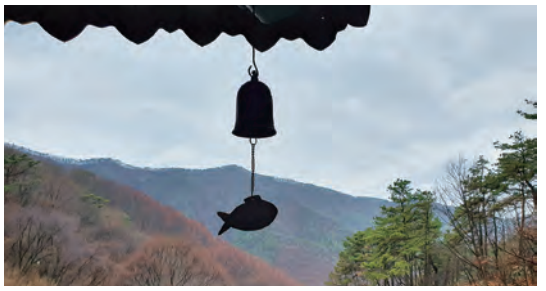
"소양면소재지에서 2년 정도 살다 이 마을로 왔어요. 사면이 다 산이라 경치도 좋고 전원주택단지도 아니어서 맘에 들었어요."

마을의 끝, 그리고 성불사로 오르는 시작점에 황운저수지가 있다. 이곳에 조성한 아담한 둘레길을 노부부가 다정히 걷고 있다. 4년 전 임실 강진에서 이사 온 이종기(81), 김계순(78) 부부다.

"우리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맨날 다섯 바퀴씩 돌아요. 그러면 딱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앞으로 여기서 오순도순 잘 살고 싶어요." 부부는 이곳에 살기 전 모악산 같은 데 등산하는 걸 좋아했다. 그래서일까 부부는



마을을 산책하다 만나게 되는 다양한 풍경들. 비오는 날 오른 성불사의 풍경이 바람에 딸랑 소리를 내고 볕좋은 날엔 냉이캐는 이와 산책하는 부부를 마주칠 수도 있다.













산책길을 이 마을 최고의 장점으로 꼽았다.

■곁에 보이는 마을 곁보래

둘레길을 산책하고 돌아오던 유순(81), 임정님(88) 할머니와 마주쳤다. 두 분은 마을에서 오랫동안 함께 지낸 이웃인데 정류장을 보자 시내버스가 끊겨 겪게 된 불편함이 생각나셨나보다.

"원래는 전주까지 가는 시내버스가 있었는데 이젠 없어지고 마을버스가 다녀. 전주 갈람 황운리에서 갈아타야 되니까 나이 든 양반들은 힘들지. 짐 들고 댕길라면 너무 힘드니까. 여기 이용객이 별로 없긴 하더라도 하루에 몇 번이라도 다녔으면 좋겠어. 전주로 뭐 사러 갈라면 골치 아파."

마을버스인 부릉부릉 행복 버스가 하루 네 차례 마을을 오가며 시내버스를 대신한다. 마을로 오는 첫 차는 아침 7시 10분에 소양농협 앞에서 출발하고 면소재지로 가는 막차는 오후 3시 40분에 마을종점을 떠난다. 저쪽에서 출발해 도착하고 다시 마을을 나가는 시간이 10분 만에 이루어지는 길지 않은 동선이다.

망표마을은 소양 황운리에서 가장 남쪽에 있다. 마을은 상망표와 하망표로 나뉘는데 과거 상망표에는 임씨 가문이, 하망표에는 전주 이씨 가문이 모여 살았다고 전해진다. 망표마을은 겉보래 혹은 것보래라 불리기도 하는데 문헌에 따르면 이 명칭은 근처에 먼저 있었던 마을에서 곁에 바라보이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마을 분들은 겉은 별거 없는데 안에서 보면 아늑하고 좋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파란 대문 집에는 스물다섯에 마을로 시집 온 유복남(85) 할머니가 살고 계셨다. "이 집 오래 됐지. 나 각시 때 지어진 집이니까. 여기서 열두 식구가 살았어. 시어머니도 모시고 시누이하고도 같이 살았으니까. 옛날 생각하면 깜깜해. 원래 집을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됐어."

외풍 들어 서늘한 방안에 놓여있는 텐트가 눈에 들어왔다. 아궁이에 불을 때야하지만 할머니는 아들이 사다준 나무를 아껴 쓰느라 당신의 몸은 뒷전이다.

"아들이랑 며느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줬어. 전기장판까지 깔아놓으니까 따숴. 요즘은 밖에도 잘 못나가고 집에서 놀아. 집에서 뭐 하겠어. 청소나 해야지." 그래선지 할머니의 나무마루는 머리카락 하나 없이 깨끗했다.

작년 여름 경상도에서 성불사로 출가한 법전스님은 우리가 방문한 날 약사여래에게 서원 중이었다. 약사여래는 중생의 질병을 고쳐주는 부처. 그 권능이 코로나에 지친 중생에 닿길 바랐다. 석불의 어깨를 적신 빗물은 계곡을 따라 마을로 흘러 주사랑교회와 소양성당을 지나 소양천 일부로 녹아든다. 자비와 사랑이 흐르는 길 위로 산수유와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다. 송지명(소양초6) 군은 매일 이 길을 걸어 학교에 간다. 공



하루 네차례 마을을 오가는 마을버스





열정봉사꾼 **이애순 할머니**

부녀회장 30년, **부당한 일은 못 참지**



열려있는 대문 사이로 이애순(83) 할머니가 보였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니 집 바로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으로 안내한다. 지금은 운영하지 않지만 잠시 쉼터로 이용되는 모양이다.

전주가 고향인 애순 할머니는 서울에서 화신백화점 안의 수예점(혼수물품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망표마을로 시집오게 되었다. "내가 아주 멋쟁이였거든. 그러다보니까 시부모가 없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이를 이해할만한 사람하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 아저씨가 부모를 여의고 혼자였는데 그래서 결혼했지. 우리 아저씨는 처음 봤을 때도 인상이 참 좋았어." 다시 살아도 남편이랑 살 거라는 말에서 깊은 애정이 느껴졌다. "군에서 어떤 교육을 받으러갔는데, 거기 선생님이 죽어도 남편하고 같이 살 사람 손들라고 했는데, 나만 들었어.(웃음) 나는 우리 아저씨랑 같이 살아야지." 흔한 술과 담배로 속 썩이는 일 없었고 크게 싸우는 일조차 없었다. 부부는 오랫동안 서로를 믿고 의지했다. 그러나 지금 할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넓은 집에는 애순 할머니만 남았다.

할머니는 새마을사업과는 다른 개념으로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일을 통해 마을에 지속적으로 봉사해왔다. 할머니는 이때가 봉사활동을 해온 시작점이라고 했다. 원래 망표마을은 냇가의 물을 떠다 식수로 사용했지만 지인을 통해 예수병원과 자매결연을 맺어 산 위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해서 지금도 그 물을 사용한다. "내가 일일이 다 전화를 돌리고 몇 번 찾아가기도 했어. 그래서 만들어진거야. 우리 부락에 필요한 일이잖아."

애순 할머니는 1972년부터 30년간 마을부녀회장을 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망표마을은 상망표와 하망표로 나뉘어져있는데 당시 상망표는 임씨, 하망표는 이씨 집성촌이었다. 상망표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면 하망표를 지나야만 했는데 길을 못 지나가게 하는 등 작은 마찰이 있었다. "우리 애들이 자꾸 고생하니까 내가 (하망표)여자들하고 친하게 지내야겠다고 결심했지. 그래서 집에서 부고가 나면 쌀 한 가마씩 지급하는 쌀계, 삼베계를 만들었어. 그때 당시에만 해도 쌀 한 가마면 엄청 났어." 이후에는 함께 여행도 다녀올 정도로 관계는 점차 호전되었다. "지금은 화합도 잘 되고 좋지 뭐. 부녀회 임원들이 몇 십 년 전에 부산에서 물난리 났을 때 쌀을 걷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헌 옷이랑 쓰레기도 일일이 분리해 팔아서 그걸 부녀회 자금으로도 썼지."

할머니는 작은 체구를 가졌지만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마을에서 부당한 일이 있다면 항상 앞장서서 해결했다. 마을 내 돼지 축사 설립을 반대하는 집회에 앞장서거나 부당하게 하망표까지만 길이 깔렸을 때에도 군에 항의하여 길을 깔았다. 할머니는 말을 하면서도 자랑할 게 아니라며 손사래 치셨다. "행정이 잘못하면 당연히 혼내야지. 알릴 게 뭐 있나. 그냥 내가 이렇게 한 것만으로 됐어."

애순 할머니가 복수초가 예쁘게 피었다며 마당으로 안내를 하는데, 집에서 꽃장식이 달린 까만 뜨개 모자를 쓰고 나오셨다. 잘 어울린다는 말에 쑥스러운 듯 미소만 머금는다. "요새는 심심하면 테레비 봤다가 저수지 있는 곳에 운동도 한 번씩 가고 그러지. 테레비도 요새는 재미있는 게 없어. 코로나 때문에 회관도 닫고 해서 영 심심하잖아. 그나저나 복수초가 예쁘지? 난 꽃이라면 다 좋아." 공



6년차 이장 **오현복 씨**

"겉보기와 달리 아늑한 마을"

소양 황운리에서 태어나 약 38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 온 오현복(77) 이장을 만났다. 그는 군을 제대하고 서울서 살다 다시 소양으로 돌아와 마을에 정착했다. 그에게서 상망표마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여기 옛날 마을 이름이 겉보래라고 하더라고요. 겉에서 보기에는 볼 것이 없는데 안에 들어와 보니 아늑하고 좋다는 뜻이래요. 그리고 망표마을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제가 마을에 왔을 때는 13호 정도 살았는데 지금은 실거주인이 24호 정도 돼요."

오 이장은 요즘 마을 주민들의 불편에 걱정이 앞선다. 원래 다니던 시내버스가 없어진 뒤 마을버스가 다니기 시작했고, 아랫마을에 있는 돈사에서 악취가 나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마을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 종점이었는데 이제는 안 다니고 대신 행복버스가 와요. 그걸로 면 소재지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래엔 돼지농장이 있는데 바람 불면 냄새가 올라와서 불편하고요."

몇 년 전, 마을에 있는 황운저수지 주변에 둘레길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마을로 찾아오기 시작했다. 산책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 여행객이 늘고 있는 추세다.

"정책적으로 마을을 위한 사업이 잘 이뤄져서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마을이 발전하려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니까요. 앞으로 잘 유지하려면 불편사항들에 대한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애들 인물 좋은 건 **아내 닮아서**

찐토박이 **임귀동 할아버지**

골목길을 따라 위로 올라가다 보니 끝 집에 다다랐다. 그 대문 앞에는 듬직한 개 한 마리가 서서 짖고 있었다. 임귀동(86) 할아버지는 집에서 나와 "얘가 사나워서 조심히 들어와야 돼요. 근데 내 앞에선 얌전하니까 괜찮아요."라며 웃었다. 마당을 지나 옛집을 개량한 듯한 집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할아버지는 시원한 곶감 몇 개를 꺼내주셨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귀동 할아버지는 마을 토박이다. 과거에는 상망표마을에 임씨 집성촌을 이루고 있어서 집집마다 거의 임씨 집안이었지만 지금은 몇 집밖에 남지 않았다.

"옛날엔 우리 마을에 최 씨 하나, 한 씨 하나 말고는 다 임씨였어요. 내가 수풀임씨인데 여기서 3대째 살고 있는 거예요. 원 시조는 나주에 있고 중시조는 임실에 있어서 옛날엔 다 같이 관광버스 타고 돌아다녔어요. 제각은 우리 마을 산에 있는데 제사는 이제 안 지내고 모여서 점심 먹고 회의만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제각이 있는 산을 가리키더니 마을 주변 산을 하나하나 짚어주셨다. 여느 뒷산 봉우리도 이름이 있듯 망표마을을 둘러싼 산에도 이름이 붙여져 있었다.

"저쪽에 올라가면 매처럼 생겼다고 해서 매봉산이 있어요. 신선들이 놀기 좋게 바위가 깨끗하니 좋아서 거기로 나무하러 많이 다녔어요. 거기 올라가면 전주랑 군산까지도 다 보여요. 또 매화골, 성지골도 있고 우리 동네에 산은 아주 많아요."



살면서 마을을 떠난 적이 없다는 귀동 할아버지. 젊을 적엔 농사도 짓고 산에서 나무도 하면서 자식 8남매를 키웠다. 당시 소양면소재지 부근에 땅이 있어 마을과 오가면서 일했다.

"원래 있던 땅은 진안으로 가는 4차선 도로가 나면서 없어지고 대신 땅값을 받았어요. 애들 갈칠 땐 농사 많이 지었는데 쌀은 아껴먹고 수수, 조 같은 거 먹고 살았죠. 하지감자나 고구마도 조금 짓고요. 그때 땅 없는 사람들은 더 곤란했어요."

할아버지는 예나 지금이나 자식들을 보면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다. 현재 밭 일부는 사위에게 넘겨주고 할아버지는 작은 텃밭에서 마늘, 들깨 농사를 짓는다.

"우리 사위는 생강이랑 검은콩 좀 지어가지고 약강(도매시장)에다가 팔고 있어요. 난 어저께 서울 올라가서 애들 들기름 좀 갖다 줬어요. 들깨 지은 걸로 기름 좀 짰거든요. 그냥 농사지어서 애들 갖다 주는 게 재미인 거죠."

할아버지는 옛날이야기를 하다가 자식들 이야기가 나오자 금세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벽에 걸려 있는 환갑 사진을 가리켰다. 할아버지가 한평생 살아온 집 앞마당에서 온 가족이 한복을 차려입고 웃고 있었다.

"애들 인물이 좋죠? 우리 딸들은 아들보다 키가 더 크다니까요. 아내 닮아서 그래요. 그나저나 예전에 아내랑 일 그만하고 놀러 다니려고 10년짜리 여권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한 번밖에 못 썼어요. (아내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여행 가자고 해도 안 가요. 나 혼자서는 가기 싫더라고요."

태연한 듯 말했지만 목소리에서 헛헛함이 묻어났다. 할아버지에게 소망이 무엇인지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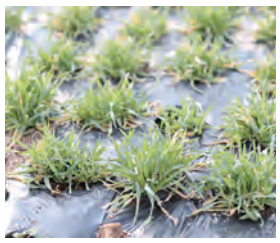
"그래도 자식들이 찌개나 반찬 같은 것도 갖다 주고 밭도 보러 놀러 와요. 지금도 아주 살 맛 나요. 계속 건강만 했으면 좋겠어요." 끝

취미부자 **이성용 어르신**

직접 키운 고대밀로 발효빵 만들어요







■ 귀촌하고 취미부자 되다

2008년, 철쭉이 예쁘게 핀 봄날. 전주에서 이곳으로 귀촌한 이성용(71) 어르신은 현재 마을에서 개발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소양에서 가장 시골스러운 이 동네가 좋아서 이사 왔다.

"도시에서는 잠을 자더라도 나도 모르게 신경이 서 있더라고요. 근데 여긴 밤에 캄캄하고 조용해서 온전히 쉴 수 있어요. 시골에서는 마음이 편안한데 오히려 더 바쁘긴 해요."

재작년까지 학교 통학버스나 관광버스 운전사로 일했던 어르신은 요즘 취미생활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하모니카 연습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고, 3년 전부터는 제빵 기술을 배워 발효빵을 만들기 시작했다.

"요즘엔 유전자 변형된 밀이 많잖아요. 그게 싫어서 고대밀을 심어가지고 그걸로 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소금이랑 물이랑 계량해서 반죽하고 발효종도 넣으면 돼요. 아내가 빵 구워서 주면 좋아해요."

어르신은 바른 먹거리에 관심이 많다. 직접 키우는 닭한테 달걀을 얻고, 산양이 새끼를 낳고 나면 산양유를 짜서 먹는다. 밭에 토종마늘도 심었다. 사람에게 가장 기초적인 '먹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게 그의 철학이다.

"지금 밭에다가는 양파랑 마늘 좀 해놨고 나중엔 고추, 배추, 무, 깨 조금씩만 해요. 나무는 매실, 사과, 감, 대추나무 있고요. 우리 집은 채소랑 달걀, 우유까지 다 있으니까 시장 갈 일이 별로 없어요. 가끔 면소재지에 있는 로컬푸드 가서 고기랑 생선 같은 것만 사 먹어요. 이게 참 고마운 일이죠."

■ 욕심 버리고 인정 베푸는 삶

성용 어르신 부부의 소담한 방 안 곳곳에는 일상의 흔적들이 묻어났다. 벽에 걸린 화목한 가족사진, 탁자 위에 놓인 성경, 악보와 하모니카. 또 붓글씨로 적힌 '부러운 사람보다 고마운 사람이 되자'라는 글귀에서는 깊은 뜻이 느껴졌다.

"사람들이 보통 물질적으로 잘 사는 걸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사실 가난해도 고맙단 얘기는 들으면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삶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려고 저렇게 걸어놨어요. 마음은 풀과 똑같아서 베어내면 또 자라듯이 내가 욕심을 버리려고 해도 계속 생기더라고요."

13년 전 마을에 터를 잡은 뒤, 어르신의 몇 지인들도 이사 오기 시작했다. 텃세도 별로 없고 산세 좋은 이곳을 소개해준 것이다. 시골에 살기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현재에 만족하고 있다.

"지금 다시 전주로 가면 못 살 것 같아요. 아파트도 많고 차도 막히고 답답하잖아요. 또 애들이 가끔 놀러 오면 산에도 한 번씩 가고 맘껏 뛰어다닐 수 있어서 좋아요."

평소 이웃들에게 트랙터도 빌려주고 나무도 베풀 만큼 인정 많은 성용 어르신. 앞으로 마을에 정착하면서 어떤 삶을 그려나갈지 궁금했다.

"개발위원장으로서 마을 사람들하고 더 돈독하게 모였으면 좋겠고요. 또 죽는 날까지 아내하고 건강히 잘 살고 싶어요. 지금처럼 농사도 짓고 저수지 산책도 같이 나가면서요." 공



바른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이성용 어르신은 직접 키운 고대밀로 빵을 만들어 먹는다. 맨 위 왼쪽사진이 어르신이 만든 프랑스 시골빵 깜빠뉴.

에코린 **김연천** 대표

작은 시골마을서 **세계시장 노크**

흙 살리는 일을 하는 김연천(63) 씨는 20여 년 전 토지를 구입하면서 망표마을과의 인연이 시작됐다. 2010년 완주로 귀촌한 그는 이듬해 망표마을에 한국융복합바이오공학센터를 설립했다. 현재 세계시장을 노크하고 있는 토양개량 및 작물 생육제 '에코린'은 김 씨가 개발한 대표 상품 중 하나다.

어떤 일을 하나

비닐하우스의 연작장해로 토양에 염류농도가 높아지면 식물생육이 잘 안 된다. 비닐하우스 내 토양을 되살리는 일이 대표적이다. 미생물을 통해 생산하는 에코린은 토양의 염류를 분해하고 영양분으로 다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땅이 딱딱해지는 경화현상을 에코린이 모래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 입단화라고 한다. 또 퇴비를 넣게 되면 금방 분해가 안 되는데 에코린과 함께 넣으면 빨리 발효가 되고 숙성 시켜서 영양분을 빨리 만들어준다.

이 일을 하게 된 계기

원래 기계공학도여서 항공기용 세척제를 개발하는 일을 했었는데 농업 쪽은 생각도 못 했었다. 처음에 2011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분

최고령 **임정님** 어르신

마을 둘레길로 산책을 다녀 온 임정님(88)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두 손에 지푸라기를 쥔 채 뒷짐 지고 걸었다.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묻자 "집 가서 청국장 만들어 먹을 때 넣을 거"라며 웃었다. 말동무가 되어 자연스레 따라 걷다 보니, 상망표회관을 지나 할머니 집이 나왔다. "아이고, 우리 집까지 무슨. 추잡시럽게."

할머니에게 청국장 만드는 비법을 묻자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이내 웃으시며 지푸라기를 다듬었다. 오랜 경륜이 느껴지는 단단한 솜씨였다. "우리 아들이 내가 만드는 청국장을 좋아해서 직접 콩을 팔아왔어(사왔어). 텃밭에 콩을 키우려고 해도 고라니가 다 뜯어먹어 못 키워. 청국장은 이렇게 짚을 넣어야 잘 띄워져(발효가 잘 돼). 지금 해 놓고 나서 모레 저녁에나 김치 넣고 삼삼하게 찌면 돼."

전주에 사는 아들이 종종 집에 오는데 미리 청국장을 만드는 것이다. 망표마을이 고향인 할머니는 이곳에서 결혼해 7남매를 낳아 키웠다. 억척스레 고생하며 키운 자식들이지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우리 막내딸이 반에서 우등생이었는데 대학교 가고 싶다고 했어. 이불 뒤집어쓰고 드러누워도 별 수 있나. 가난하니까 못 보내는 거지. 그게 지금도 한이야."

먹고 살기도 어려웠던 그 시절. 시골에서의 돈 벌이는 더욱 마땅치 않았다. 당시 대부분의 가정집에서는 식구가 먹을 만큼만 농사를 지었고 옷도 직접 만들어 입었다.

"남편이 술을 좋아해서 내가 고생했어. 주변에 산밖에 없으니까 나무를 해다 팔아서 먹고 살았지. 또 마을 사람들 모여가지고 길쌈해서 삼베, 명주, 모시 옷 같은 거 해 입었어. 고생스러웠어도 옛것이 좋아. 그때는 냉장고도 없어서 시암(우물)에다가 김치 넣어놓고 했는데 그게 더 맛있었네."

마당에서 지푸라기 다듬고 청국장 띄우다 보니 어느덧 해가 기울었다. 할머니는 기분 좋게 옛 이야기를 마치고선 마당에 놓인 장독대로 향했다. 그리고 양갱 세 개를 꺼내어 건네주셨다.

"커피도 못 챙겨줘서 어떡해. 이거라도 먹으면서 조심히 들어가." 공





청국장 맛의 비밀?
자식사랑이지!



전주사는 아들이 좋아하는
청국장을 띄우는 임정님 할머니



해시키는 기술을 중기청에서 과제로 1년간 연구했다. 음식물을 소멸시키는 기술을 개발했고 특허도 받았다. 그 다음엔 음식물처리 공장을 하려고 했는데 쉬운 일이 아니어서 보류했다. 대신에 그 기술로 농업용 땅을 살리는 걸 개발한 것이다. 제일 근본은 토양문제이니까.

2012년부터 농업용 토양 개량제 개발을 시작했고 2013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현재 상황은

사업범위는 전국 단위로 이뤄지고 있다. 해외도 진행 중이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하고 베트남 화오장성에서 자몽을 실험해 작년부터 이번 달 2월에 끝났는데 결과가 잘나왔다. 중국하고는 수출관계 진행하고 있다.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수출에 많이 신경을 쓸 예정이다. 국내로는 유튜브나 SNS 등 온라인상의 판매를 집중적으로 시도하려 한다.

소양에 터를 잡은 이유

이 땅은 20년 전에 사 놓은 것이다. 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5년간 입주기업으로 일했고 그 다음에 이곳에 공장 겸 사무실을 마련한 것이다. 망표마을은 지리적으로 좋다. 지척에 고속도로 소양나들목이 있어서 접근성이 좋고 완주라는 지역 자체도 외부와 연결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다. 처음에 왔을 땐 막막했는데 마침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이 여기에 있어서 관계 형성의 발판이 됐다. 또 이서 혁신도시에 농촌진흥청이 있어서 좋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영어 통역 지원을 받는 등 도움을 받았다.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

농민들의 땅을 건강하게 살리는 게 목표다. 우리 먹거리가 나오는 땅이니만큼 더 열심히 하고 싶다. 유기농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돕고 최종적으로는 국민 건강에 보탬이 되는 일이다.

뚝딱! 완주형 공유경제 실험장

도깨비마켓

회원가입하면
대여, 구매, 판매 모두 가능
온오프라인 창구도 마련

공유곳간 인기품목은
블루투스 스피커, 캠핑용품

이서 혁신도시 삼락로컬마켓 2층에 위치한 도깨비마켓의 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는 보물창고 같은 푸짐한 공유곳간이 펼쳐진다. 이곳에는 형형색색의 화려한 옷가지와 인형, 책, 장난감, 유모차 같은 아동 물품부터 캐리어, 캠핑의자, 야전침대, 앰프, 빔프로젝터, 사다리, 라돈측정기 등의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물품이 구비되어 있어 필요한 물건들을 찾는 재미가 쏠쏠하다.

도깨비마켓은 단순히 물품을 사고파는 상점이 아닌 중고물품 위탁거래와 공유물품 대여가 이뤄지는 공유경제 플랫폼이다. 도깨비마켓의 세 가지 키워드는 대여, 구매, 판매. 이용자들은 필요하지만 자주 찾지 않는 물건은 무상으로 대여하고, 깨끗한 중고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한다. 판매자의 경우 플랫폼을 통하면서 직접 대면의 수고와 시간 소모를 덜 수 있다. 물품을 공유하며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도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공유경제 실험장인 셈이다. '도깨비'하면 떠오르는 배우 공유처럼 '공유'하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공간으로 자리잡고자 하는 바람에서 '도깨비마켓'이라는 친근하고 귀여운 이름도 탄생했다.

도깨비마켓의 단골 판매자 이미영(46) 씨는 "로컬푸드 매장에 오는 날이면 언제나 빠지지 않고 들른다. 요즘 유행하는 중고거래는 직거래라 연락하기 번거롭고 머리가 아픈데 도깨비마켓은 오프라인 매장 중심이라 편리하다. 버리기엔 아까운 물건들을 팔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틈틈이 홍보하고 있다"며 웃었다.

도깨비마켓은 현재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판매와 구매 모두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하고, 1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하면 공유물품(나눔곳간)은 2주 동안(1회 연장 가능, 최대 4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나눔곳간 최고 인기품목은 블루투스 스피커와 캠핑용품이다.
판매의 경우 판매자가 직접 중고물품 가격을 책정하여 가져오면 판매자와 담당자가 함께 검수과정을 거쳐 매장에 진열한다. 판매가 성사되면 위탁판매수수료 2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매달 10일 정산되어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고, 만약 물품이 2주 동안 팔리지 않으면 판매자의 의사에 따라 물품을 회수하거나 기부한다.

완주소셜굿즈센터 도깨비마켓사업단의 홍수연 담당자는 "지금은 관리문제로 여성의류와 잡화, 아동물품으로 그 품목이 한정되어 있다. 매주 화요일마다 방문하는 부부가 있는데 남편 분이 올 때마다 잊지 않고 남자 옷을 찾으셔서 마음이 쓰인다. 앞으로 마켓이 더 널리 알려지고 활성화 되면 다양한 품목을 갖추고 싶다"고 말했다.
도깨비마켓은 작년 9월 9일 정식으로 문을 연 이후 상설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2층이라는 위치를 보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야외 플리마켓을 열어 홍보활동을 펼쳤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그 흐름이 지속되기 어려워졌다.

홍 담당자는 "홍보에 항상 아쉬움이 남는다. 지역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피드백을 중심으로 운영방식을 보완해나가려고 했는데 모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보니 올해는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늘릴 생각이다. 라이브방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온라인카페를 활성화하여 오프라인 활동을 보완할 수 있는 판매 방식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도깨비마켓

- **주소** 삼락로컬마켓 2층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38)
- **이용시간** 월-금 11: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 **이용대상** 완주군민과 혁신도시 주민
- **문의** 070-5151-3213
- **인스타그램** dokebi_market
- **네이버카페** wanjucoop





이서 혁신도시 삼락로컬마켓 2층에 위치한 도깨비마켓. 주로 여성의류와 잡화, 아동물품의 대여, 판매, 구매가 가능하다.

착한 상품 ⟶ ⟵ 착한 소비 거리 좁히기

소셜굿즈 무료광고 신청하세요

우리 지역을 살리는 착한 경제를 키우기 위해
<완두콩> 이 소셜굿즈 무료광고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신청자격 | 소셜굿즈 유무형의 사회적경제 상품
| 지원대상 | 월2-3곳
| 신청접수 | 연중 아무때나
| 광고형태 | 샘플 참조
| 문의 | 063-291-8448





장애인의 희망일터를 일구는 사회적기업 다정다감이
'다정'이라는 터전 위에 새로운 꿈을 펼칩니다.
'다정'은 장애인 10인 이상 채용, 장애인 편의 시설을 완비한 장애인 표준 사업장입니다.
용진읍 '구름골(운곡리)'의 대자연과 노을이 아름다운 '다정'으로 초대합니다.

완주군 용진읍 신지암로 45 T. 063)242-0802
dajeong_official dajeong

광고를 원하는 희망 월을 정해 연락 주세요. 지면관계상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아동친화 뉴스레터 01 아동 청소년의 참여와 주체성

그저 게임기를 얻을래? 지역을 바꿀래?

독일에서는 1980년부터 청소년의회가 운영되었습니다. 독일역사를 살펴보면 1980년 이전에 정치 포퓰리즘이 난무하였고, 청소년의 정치 혐오감이 확산되었기에 국가정책으로 청소년의회를 권장하고 정치교육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지금은 독일전역 300여 곳에서 청소년의회가 활발하게 운영됩니다.

완주군 청소년의회에 어떤 청소년 의원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어린이의회부터 청소년의회까지 5년 정도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국을 대표하여 유니세프 한국대사로 임명되어서 전 세계 아동대사들과 코로나19에 대한 회의, 국제회의 등에 참여하여 발표도 하였습니다. 처음에 청소년을 만났을 때에는 말수도 적고 쭈뼛쭈뼛한 모습이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였지만, 제 생각이 완전한 기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소극적으로 보였던 청소년은 의회라는 공간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발표하였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소년의원이 제안한 정책은 현재 완주군 정책에 반영되어서 일요일에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참여를 통해서 아동·청소년의 삶뿐만 아니라 군민의 삶도 변화한 좋은 사례입니다.

뉴스레터의 첫 번째 주제를 아동·청소년참여와 주체성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참여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요즘 워낙 참여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조금 남용되긴 합니다만, 내 삶과 관련된 일에 관여하는 것! 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관심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축구선수라고 한다면, 어느 포지션에 서야할 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맡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축구감독이 다른 포지션을 맡겼다면, 여러분은 분명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어느 포지션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참여의 연속입니다. 내









완주군 아동·청소년의회 의원들의 다양한 활동들

삶과 관련된 무언가에 내 의견을 피력하고 토론하며, 내가 원하는 주체적 삶을 찾아가는 것! 바로 참여와 주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참여와 주체성을 어떻게 찾아야할까요? 많이 들어봤을 단어입니다만,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지,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참여활동을 하다보면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열정적인 분들이 아동·청소년을 추천하게 되는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사람마다 특성이 있는데, 책을 좋아하는 아동 혹은 사교가 좋은 아동 등 다양한 부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지 않은 일을 선생님이, 혹은 부모님이 하라고 강요해서 한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제가 참여했던 청소년 동아리에 몇몇 청소년의 자세가 불량해서 물어봤더니 엄마가 시켜서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 해도 좋아 라고 타일러봤지만, 엄마가 이 활동을 다하면 닌텐도를 사주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 친구는 그만두지 않고 그냥 앉아있습니다. 서로에게 힘든 시간입니다.

완주군은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를 인증 받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아동친화도시란 지방정부 시스템 안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온전히 실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시스템의 첫 번째 핵심원칙은 아동·청소년의 주체적인 참여입니다. 주체적인 참여는 아동·청소년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고민하고, 변화하는 시간입니다.

나와 관련된 지역사회, 학교, 그리고 공동체 일에 참여하고 나의 의견을 이야기한다면, 나의 관련된 일들은 변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나를 더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나의 행복은 가족과 친구, 이웃들의 행복과 연결되고, 내 주위에 행복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우리 완주군이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여러분들의 참여와 주체성을 되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명확히 인식한다면 다음 걸음이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홍문기(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박사)

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 | unicef for every child

이야기와 시간은 잔잔하게

사람의 노래

⑥ 이태리 무명작곡가의 노래같은 **서기순 할머니**


인생의 좋은 기억을 많이 갖고 계시는 서기순 할머니

나는 화산면 병암마을에 산다. 누구네 집 몇시에 불이 꺼지는지 다 보이는 이 작은 마을에 지난 토요일 트럭이 한 대 들어왔다. 짐칸 가득 짐과 젊고 서글서글한 아들을 앞세운 할머님 한 분이 이사를 오셨다. 궁금하고 신난 건 나 뿐이고 동네분들은 벌써 긴 세월 알고 지낸 지인이며 같은 교회 교인이라고 하신다.

동글동글 귀염상의 서기순 할머니는 짐이 많아 보이셨다. 출가한 자식 넷을 아직도 챙기시는 엄마의 음식과, 그런 엄마에게 보내는 자식들의 마음이 잔뜩 담긴 냉장고만해도 벌써 석 대, 그 사이사이로 아직 쌀쌀한 초봄에도 싱싱해보이는 손 많이간 작은 화분들까지, 집을 대충 훑어봐도 건강하고 바지런한 분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리 들어오라는 할머님을 쫓아 전기장판 위에 앉으니 따순 물을 가득담은 고무팩을 주시고는 어색한 기운도 없이 말씀을 잘도 하신다.

'고생, 고생, 난 고생만 했어…'라는 할머님들의 공통멘트로 기억을 되짚어나가기 시작하셨지만, 그 뒤에는 이쁜 이야기가 참 많았다.

올해 98살이 되신 친정어머님은 얼마나 정정하신지 아직도 나물을 캐서 지인들에게 나눠주실 뿐더러, 작년에는 콩을 10키로나 수확하셨다고 한다. 물론 그 콩은 여든이 다 되가는 이쁜 딸래미에게 주고 싶어하셨단다. 시어머님은 음식을 또 얼마나 잘 하셨던지, 장 담그는 것을 모두 그 분께 배우셨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네가 가장 좋다며 세째 며느리인 자신과 함께 지내셨단다. 참 좋은 분이셨고, 나한테 정말 잘해주셨다고. 뿐만 아니라, 연무에서 시집와 서천 간척지로 나락농사를 지러 떠난 곳에서는 형님네와 함께 살며 밥을 담다담다 몇 그릇인지 까먹을 정도의 큰 살림을 하셨음에도, 그 형님과도 정이 들어 아직도 좋게 지내신단다. 거기에 시누이들까지 그렇게 착해서 남편 먼저 간지 12년 세월이 흘렀어도 아직도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낸다.

이쯤되니 어르신이 복이 많아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으셨던건지, 어르신이 맘이 좋아 다 좋게 봐주시는건지 궁금증이 없어질 정도로, 인연이 된 모든 이들을 품어줄 큰 마음을 갖고 계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 평온한 마음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좋은 건 없었어. 힘들게만 살았어' 하시면서도 간척지 논 바로 옆 바다에서 한 양동이씩 게를 주워담는 게 얼마나 재미졌는지, 남들이 하는 것은 다 궁금해서 논 바닥에 망을 치고 미꾸라지를 잡던 일까지 좋은 기억도 참 많으시다. 게를 잡아 튀기고, 추어탕을 끓이던 얘기부터 마늘과 고추장을 반씩 넣은 마늘고추장, 그 고추장을 넣은 육회로, 서울사는 한 집에 8키로나 파셨다는 된장으로, 한 들통씩 삭혀 명절이면 다 나눠주셨다는 식혜로 이야기가 술술 넘어간다. 어르신들은 음식얘기가 나오면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반의 반도 못 알아먹는다. 메주를 담궈놨던 소금물이 간장이라는 사실에 놀라는 도중에 옆집 집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

어르신이 캐온 도라지를 보일러가 빵빵한 옆집 마루에서 말리고, 집사님은 그 도라지가 잘 말렀다며 색동보자기에 곱게 싸서 오셨다. 고맙다며 사과 한 알을 꺼내시고, 사과를 앞에 놓고 서로 몸 생각해서 일 좀 그만하라는 진심어린 걱정을 나누신다. 소소하고 따스하게 흘러가는 이야기와 시간이 바로크시대의 이태리 무명작곡가의 노래처럼 클라이막스가 없이도 참 이쁘고 곱다.

이제 열집이 된, 그 사이에 몸집을 불린 우리 마을이다.

김민경(완주문화재단 한달살기 작곡가)



설레는 완주에 온 8년차 청년이다. 그림 그리고 디자인 하는 일을 한다.



장이경의 삶의풍경

삼태마을 정선량

시속 15km 누가뭐래도 베스트 인생 드라이버!

전주에서 서울까지 ktx를 타면 한 시간 반이면 닿을 수 있고 오늘 인터넷으로 먹고 싶은 것을 주문하면 내일이면 받아서 먹을 수 있고 다른 대륙 먼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도 이젠 거의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다. 빨리 달려야 직성이 풀리는 자동차들을 위해 구불구불하고 좁은 길들은 반듯하고 넓은 도로들로 하루하루 변해가고 있고 무엇이든 빠른 것이 미덕인 시대, 우리는 바야흐로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다. 빠른 것이 효율이 높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것이 꼭 좋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무엇보다도 그 속도들을 따라잡지 못하면 시대에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좀 무섭기도 한 이 세상에는 그래도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느긋하게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베스트 드라이버들이 있다.

오늘은 시속 15km의 속도로 달리며 세상을 유람하는 소양면 명덕리 삼태마을 정선량(87) 할아버님과 이영준(83) 할머님의 유유자적 느릿느릿 운전기(運轉記)를 소개한다.

"전에는 자전거 타고 봉동까지 다니곤 했지. 갈수록 힘이 없으니까 아들이 전기 오토바이를 사주고 그 다음에 전기차까지 사줬어. 열 시에 자전거를 타고 길을 나서서 열두 시 반에 집으로 와. 점심 먹고 조금 쉬다가 이제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 두 시부터 세 시까지 소양면 돌아다니다가 다시 집으로 와서 이번에는 전기차 타고 용진으로 가서 소양면사무소까지 한 바퀴 돌아서 들어와. 집에 돌아오면 다섯 시 넘지.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쉬고 다음날 또 똑같이 드라이브를 나가는 거지. 나는 드라이브를 좋아해. 전기차 타고 멀리 나갈 때는 전주도 가고 위봉폭포나 오도재 까지도 가보고 고산휴양림도 가봤어. 나 같이 늙은 사람은 남는 게 시간이야.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보다 이렇게 천천히 길을 달리는 거지. 차 안에서 음악도 들어. 노들강변, 아리랑, 한오백년. 민요를 듣지. 애환 섞인 노래를 들으며 길을 달리면 가슴이 이상해. 울컥할 때도 있고 말이야."

어르신 내외는 지금 살고 계시는 소양면 삼태마을이 태어난 고향이다. 집안 어르신들이 혼약을 맺어놓은 상황이어서 군대 제대하고 마을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정선량 할아버님은 어린 시절에 전주사범학교를 다니셨다. 새벽 네 시에 길을 나서면 날이 밝아지는 걸 보며 걸어서 전주에 있는 학교에 가고 깜깜한 밤중이 되어야 다시 집에 올 수 있었다고 한다. 학교를 마치지 않았는데 6·25전쟁이 터졌다. 전쟁이 끝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에는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군대



를 가게 됐다. 사범학교 출신이라 군수기지사령부 공병참모부에서 군복무를 마쳤다. 몇 년 후에 상관이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소식을 라디오를 통해 알게 됐다고 한다. 이영준 할머님 친정은 동네에서 제법 잘 사는 집이었지만 할아버님 형편은 그렇지 않아 남의 집 셋방에서 살림을 시작했다. 남의 집 품 팔아가며 살았지만 육남매를 낳고 조금씩 돈을 모아서 논도 사고 밭도 샀다. 그렇게 늘려간 살림에 지금은 삼태골짜기에 제법 너른 전답을 갖고 있다.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며 어르신 내외는 서로를 지긋하게 바라보면서 다정하게 칭찬해 주셨다.

"애들 아버지가 그래도 헛짓은 안했어요. 술 안 하고 도박도 안 하고 그렇게 착실하게 돈을 차곡차곡 모으다 보니까 잘 살게 되더라고요. 그악스럽게 살았지. 사람이 아무 것도 없어도 신용이 있어야겠더라고요. 내 시집보내기 전에 집안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그런 소리를 하는 걸 들었어요. 아무 것 없어도 사람 하나 보고 보낸다고. 이 양반이랑 살아서 여태껏 좋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전기차를 타고 돌아다닐 때도 뒷자리에 할머니를 굳이 앉히려 하신다. 할머니는 공간이 좁고 딱딱해서 허리아파 싫다고 손사래를 치는데 할아버지는 굳이 태워놓고는 개구지게 웃는다. 그 모습에 나도 왠지 마음이 간질간질해지더란 말이다.

"나는 자식들한테 다른 말 안 해. 그냥 재밌게 살으라고 그래요. 그 말만 해요. 내외간에 잘 살면 모든 게 다 끝나버려. 자식 교육 같은 것도 필요없어. 내외간에 잘 살면 자식들은 무조건 부모 따라하게 되어있거든. 단순해. 나도 우리 안 사람이랑 몸은 고생하며 살았는데 인생 재미있게 산 편이야. 이 삼태골짜기에서는 내가 돈도 많이 벌었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있던 땅도 균등하게 나눠서 아들 딸 차별 없이 다 나누어 줘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병원비랑 약값도 자식신세 안 져. 내 몸에 들어갈 돈은 딱 마련해 놓으니까 자식들한테 손 안 벌려. 그러니까 서로 좋아."

대문 안쪽 목련나무가 예쁜 어르신 집 오른 편엔 자전거와 전기오토바이, 소형 전기차 그리고 할머님이 타시는 전동차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는 전용 주차공간이 널찍하게 자리하고 있다. 예전엔 농사짓는 데 필요한 것들이 빼곡하게 자리했을 공간에 이제는 느린 드라이브에 필요한 탈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 농사일을 접은 지 이십 년 쯤 지났지만 어르신들은 여전히 움직이려고 한다. 속도는 느리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이들을 만나고 음악을 듣고 흘러가는 바람을 따라가며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에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움직이는 것이 중요할 뿐.

"지금은 혼자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몇 년 전에는 이 마을 친구들 대여섯 명이 함께 자전거를 타고 길 따라 돌아다녔어. 머리 허연 늙은이들이. 그럼 지나가는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 멋있다고 박수를 쳐주곤 그랬지. 자전차 타고 다니다가 sbs기자가 와서 인터뷰도 했어. 그 친구들이 지금은 다 죽고 한 명 남았네. 한 친구는 이제 힘이 없어서 자전거도 못 타. 내가 큰 아들하고 막내아들 오토바이를 각각 한 대씩 사줘버렸어. 한 대에 사천씩 하는 비싼 건데. 재밌게 사는 것이 인생 목적이어야 되니까. 형제간이 일요일이면 수원, 안성에서 오토바이 타고 우리 집에 와서 점심 먹고 쉬었다가 가. 아들들이 들락날락 하니까 좋지."

어르신을 알게 된 것도 어쩌면 매일 같이 느리게 그 길을 달리는 어르신의 속도 때문이었을 것이다. 몇 년 전 매주 소양 다닐 일이 있었는데 갈 때 마다 머리가 하얀 어르신이 작은 삼륜 전기차를 몰고 천천히 도로를 달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추월하기 애매해서 어르신 전기차를 뒤따라가면 속도가 딱 시속 15km였다.

어르신들은 지금 이 집터에서 40년을 사셨다. 원래는 방 두 칸 초가집이었는데 32년 전에 허물고 지금의 집을 지었다. 그 당시 동네 어르신들이 이 집 터가 좋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하셨다. 애들 다 잘 되고 내외도 잘 늙었으므로. 다른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속도로 살아온 어르신 내외는 누가 뭐래도 인생의 베스트 드라이버였다. 앞으로도 천천히 안전하게 드라이브를 즐기시기를.

글 · 사진=장미경 **장미경**은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고산미소시장에서 공동체가 만든 제품을 파는 편집매장 홍홍을 운영한다.

위_전동차를 탄 할머니를 지긋하게 바라보는 정선량 어르신 뒷편으로 소형전기차가 보인다.
아래_지금의 집터에 있던 예전 초가집에서의 아이들. 지금은 모두 환갑이 지났다. 전기차에 장착된 선풍기와 블랙박스, 음악플레이어 USB, 전기차에 탄 어르신 부부
왼쪽_모스크바 여행가서 사온 털 모자를 쓴 정선량 어르신. 모자는 겨울철 드라이브 필수품이 됐다.













이 세상 모든 똥들이 땅으로 돌아가기를



[9] 해우소와 온상

2018년 완주로 귀촌한 신미연은 작은 텃밭을 일구며 제로웨이스트, 자급자족의 삶을 지향한다.



어느덧 날이 풀리고, 시골살이를 하며 꼭 필요하다고 느꼈던 '해우소(똥간)'와 모종을 키우는 '온상' 만드는 작업을 했다. 해우소는 아무래도 집과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또 전망이 트인 곳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해우소까지 가는데 어렵지 않고 가는 길이 즐겁기 때문이다.

먼저 집을 둘러싼 뒷산에 올라 자리를 봐두고 레이크로 땅을 평평히 골랐다. 해우소로 쓰기에 충분한 1평 남짓한 땅에 가림막 하나만 있으면 멋진 그림이 나오리라. 창고에 있던 나무 기둥 몇 개와 판자들을 뒷산에 가지고 올라 뚝딱뚝딱 못질을 하는데 그동안 움츠려있던 나의 몸과 마음이 생기 있게 피어나는 듯했다. 남이 할 땐 쉬워 보이던 못질도 몇 번을 두드려야 들어가는데 그렇게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망치질을 하다 보니 어느덧 해우소 가림막이 완성 되었다. 고르고 평평해진 땅에는 큰 벽돌을 두 개 올려놓고 그 사이에 쓰임을 다한 프라이팬을 하나 깔았다. '나는 자연인이다' 방송을 보다가 얻은 아이디어인데 프라이팬 위에 변을 보고난 후 팬을 가지고 퇴비간으로 가면 그만이다. 해우소를 다 만들고 나니 어서 신호가 오기만을 기다려진다. 해우소 가는 일이 이렇게 기쁠 줄이야.

다음은 온상 만들기. 농사를 지으면서 오래전부터 고민하던 것 중 하나는 플라스틱 모종판 없이 모종을 키워내는 일이었다. 햇빛에 부식되고 버려지는 모종판을 보며 씨앗을 키우는데 있어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을 순 없을까 고민하다 생각해낸 것이다. 그동안 씨앗을 직접 땅에 심는 직파만을 고수해왔는데 올해는 일찍 모종을 키워보고 싶었다. 온상을 만드는 것은 텃밭을 가꾸는 소농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온상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①볏짚이나 낙엽을 깔고 볏단을 두툼 후 그 위에 풀, 등겨, 음식물쓰레기를 넣어 인분뇨, 물 등을 층을 지어 쌓는 것 ②구덩이를 파고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만드는 것 ③나무로 틀을 짠 후에 역시 동일하게 만든 후 ①②③온상 위에 기름종이로 덮는 방법이 있다.

우리는 나무틀에 볏짚과 낙엽을 넣고 음식물찌꺼기와 부엽토 낙엽을 층층히 쌓아올렸다. 온상은 천천히 발효가 되면서 온도가 올라가는데 적어도 일주일후에 씨앗을 심는 것이 좋다. 아직 씨앗을 심기 전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무척 궁금하다. 성공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다.

이런 해우소도 온상도 모두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자원이 (똥은 매우 유용한 자원이다) 선순환 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이 세상 모든 똥들이 땅으로 돌아가기를 꿈꾼다.



[8] 정월대보름

한국생활 10년차 나카무라 미코는 2020년 5월 한국인 남편과 비봉면에 정착, 한국과 일본의 시민교류를 추진하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비슷한 풍습 '가깝구나'



이웃 모일 날씨 비

어제 한 시간정도 같이 차를 마셨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안한 일이 생겼는데…." 이틀 전에 그가 갔던 식당에 확진자 한 명이 들렀다는 연락이 왔다고, 시간대가 다를 수는 있지만 어르신들이 함께 살아서 서둘러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결과가 나오는 내일까지는 나도 사람들을 피해 집에 머무르고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짧은 통화였지만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되풀이하는 소리에 "미안하다니,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어요."라고 대답을 했다. 산기슭에 사는 나에게 집에서 보는 코로나 뉴스 영상은 먼 이야기 같았는데, 사태가 길어지면서 점점 그 모습이 눈앞에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다.

이웃 모일 날씨 갬

마트에 갔다. 계산대 옆에 땅콩이나 호두가 쌓여져있는 것을 곁눈으로 보면서 스쳐 지나갔는데 생각해 보니 대보름 준비였나 보다.

일본에서 음력 정월 십오일에는 팥죽을 먹는 풍습이 있다. 또 새해에 찾아오신 세신(歲神)을 보내기 위해 불을 태우는 행사도 여러 지역에 남아 있다. 논에 대나무를 세워, 설날 장식이나 새해의 소망을 쓴 습자지를 태운다. 집 주변에 태운 재를 뿌리면 병에 걸리지 않다고 한다. 한국과 일본의 비슷한 풍습에 가까움을 느낀다. 자 그럼, 팥과 찹쌀을 준비해볼까.

이웃 모일 날씨 흐림

대보름달을 함께 보자고 한국과 일본 각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다. 언제든지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시대에 촌스럽지만, 여러 곳에서 같은 하늘을 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우리들을 맺어준 인연의 실도 보일듯하다. 아프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멀리 사는 친구들과 달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오늘 밤, 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싶어진다. 여기는 날씨가 흐려서 달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소원을 빌었다. 일본은 어땠을까?

곤충들의 법

이근석의 **완주공동체이야기**

해충과 익충

이제 서서히 농사를 짓는 철이 오고 있습니다. 이미 봄의 전령들은 꽃을 피워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농사철이 되면 농부들은 곤충을 익충과 해충으로 나누어 대응을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람 중심으로 놓고 가르마를 타는 것이겠지요. 하기야 저도 농사(?)를 짓는데 전쟁입니다. 흔히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풀과의 전쟁, 해충과의 전쟁, 고라니 멧돼지와의 전쟁으로 대변됩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의 욕심이 부른 재앙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로가 나누어 먹자고 했으면 이런 사단까지 가지 않았을까 하고 잠시 생각을 해 봅니다. 꿈이겠지요. 무슨 농사를 지어도 수익을 내기 쉽지 않고 또한 수확량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각종 퇴치 약물을 써야 할 것입니다.

뉴스에서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메뚜기 떼에 대응전략으로 메뚜기를 잡아오면 일정 금액을 준다고 합니다. 그 메뚜기로 거름을 만들어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사실은 농작물은 티끌하나 남아있지 않기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은 것이라 봅니다. 옛 어른 들은 콩을 심을 때 3알을 넣어 1알은 곤충의 유충에게, 1알은 새에게, 그리고 나머지 1알을 잘 키워



수확을 한다고 배웠고, 저도 그런 것에 따라 콩을 심기도 했지만 새에게 주는 것을 지나면 이제는 고라니가 새순을 먹기에 제대로 수확을 해 본 경험이 미천합니다. 그런 여유도 없습니다. 자본주의 경쟁에서 이익을 만들려면 나누어 줄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고라니가 먹을 식량이나 생활범위에 인간의 힘이 들어가서 생긴 현상이지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규정하고 사회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되면서 인간의 사회성은 빛을 잃었고 곤충의 세계에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곤충들의 먹이는 다양합니다. 다른 것들은 일반적인 먹이활동을 하지만 유독 교미를 하고 수컷을 잡아먹는 사마귀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종족보전을 위한 행위로 그리 나쁜 시각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인간 세계에는 욕심을 품는 바람에 사회적인 룰이 없어졌다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완주는 2019년부터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준비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공모되어 발표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소셜굿즈 공모사업 심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공모를 한 모든 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공동체를 위한 사업이고 지역사회에 기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내심 들여다보면 단순하게 자신들의 사업 확장이나 이익을 위한 사업공모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정말 지역사회를 위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것은 부족함을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내가 좀 덜 벌고 덜 먹어서 이웃이 살아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에는 이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럴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는 것인지,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잊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약간은 이런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별도의 교육장치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더 큰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통해 나와 지역이 동반 성장한다는 확신만 들어도 우리는 좀 내려놓고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차근차근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아직도 어려움을 많은 부분에서 겪고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자 노력하고, 어려운 점을 함께 극복해 보자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보았으면 합니다.



이근석은 귀촌해서 고산 성재리 화전마을 에 살고 있다. 전북의제21 사무처장을 거쳐 지금은 소셜굿즈센터 이사장으로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마을소식

사회적경제 공동체 11곳 선정

올해 1월부터 공모가 시작된 '소셜굿즈 육성사업', '청년창업공동체 육성사업'에서 11개 공동체가 선정되었다. 이중 소셜굿즈 유형 6곳, 지역창업공동체 4곳, 청년창업공동체 1곳이다. 지난 2월부터 한 달 간 서류접수, 면접심사를 모두 마쳤으며 사업에 부합하는 공동체들은 앞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청년마을목수협동조합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특히 환경문제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동체들의 참여가 눈에 띈다. 공동체 '쓰임'은 버려진 소재를 활용한 주문형 업사이클링(재활용품을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제품 생산을 계획중이며, 공동체 '같이 걷는 길'은 제로웨이스트샵(소비자가 가지고온 용기에 세제 등 제품을 담아가는 가게)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또한 청년창업공동체로 선정된 청년마을목수협동조합은 노인 단독 가구 주택 수리, 목공형 부스 개발 사업을 계획 중이다.

선정 공동체는 올해 11월 말까지 사업에 참여해 사업의 목적달성과 연관 있는 직접사업비를 지원받으며,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상품 개발, 홍보 등에 다양한 분야에 대해 도움을 받게된다.

사회적경제과 박성민 주무관(소셜굿즈팀)은 "같은 비전을 가진 주민공동체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사업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며 바람을 얘기했다. 이어 송동화 주무관(청년정책팀)은 "창업공동체가 지역 내에서 기반을 잡는 데 이 지원이 어느 정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촌티작렬 시골잡지
완두콩 구독문의
291-8448

구이면 원기리, 경(敬)의 본향(本鄕)



이승철 향토사학자가 들려주는
완주이야기 (100)


구이 모악산 둘레길

지금 사람 유식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웹사이트 '완주소개>완주역사>지명유래>구이면' 들어가면 간결하면서도 요모조모 잘 적어 놓았다. 이 정도 알아두면 향토사학자 소리 평생 들을 수 있다. 『국어사전』을 펼쳐보니 좋은 말 여기에 다 있다. 정승(政丞) 혹은 관청(官廳)이 '구이'이고 입과 귀(口耳)가 '구이' '구이(鉤餌)'는 낚시에 다는 미끼를 말한다. '구이경지(久而敬之)'는 표어로 삼을만하다. 이 뜻은 '오래도록 공경함 pay a constant respect'이니 이 이상 좋은 말 어디에 또 있겠나. 퇴계 이황 선생의 수양론에 '심(心)과 경(敬)'을 두 축으로, 심(心)은 '수양이 이뤄지는 바탕'이요, 경(敬)은 수양을 '실천하는 방법'이란다. 구이는 최고 가치 '경'을 지닌 으뜸 면이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완주군), 경천애인(敬天愛人:경천면), 화려강산(華麗江山:화산), 고산유수(高山流水:고산), 용진승리(勇進勝利:용진읍)처럼 구이면도 '구이경지(久而敬之)'를 외우면 말대로 된다. '경찰서장·군수·국회의원 나온 면'이라고 설명하면 '구이 존경할 만한 디' 이렇게 반응한다.

서원에 절, 명산이 우뚝하고 김정은(43대손) 북한 국무위원장 전주김씨 시조 김태서 묘가 있어 금강산 구경하던 시절에 '전주에서 왔다하면 대접을 하더라.'는 말이 있지 않나. 구이주민은 '놀부/흥부', '콩쥐/팥쥐' 다른 점을 꼭 집어내듯 변별력이 뚜렷하다. 면사무소 마당에 박제근(朴齊近)· 김창석(金昌錫)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가 나란히 있는데 하나는 놀부·팥쥐에 해당하듯 부정적인 인물의 빗돌이다. 송이목 전 면장과 뜻을 함께 한 이의성 주민자치위원장 등 유지들이 옥석을 가려 보기 쉬운 자리에 옮겨 세웠다. 이 일로 구이정신이 더 한층 밝혀졌고, 면민의 염원을 들어내는 징표가 새 받침돌이다. 훌륭한 사람을 기다린다. 고상한 발상이다. 언젠가는 비석이 서기 마련이니 이게 경(敬)이요, 구이면 이래서 동네마다 살맛이 난다.

구이저수지 둑에 서면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ㄷ자 구조도 대단하지만, 지금 같으면 저수지 어림도 없다. 아래 몇 동네를 빼고 모두 전주 작인들 물이니 양보와 적선정신이었다. 이런 결심 어디서 나왔을까? 구이면민은 전주 사람과 혼인을 많이 했다. 세내 물길 따라 구이와 전주가 이웃이고, 부중인(府中人)과 혼인으로 문화수준이 높아져 살림을 잘 했다.

구이 주민은 '아홉 가지 소리'를 다 듣는다. '동서남북, 상하, 천지인(東西南北上下天地人)'. "귀 있는 자여 들을지어다.(요한계시록 2:17)" 누구나 묻기에 익숙하면 좋은 소리를 듣고, 구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존경을 받는다.(久而敬之:구이경지)

국사편찬위 史料조사위원·칼럼니스트(esc2691@naver.com)

새로 왔어요

완주에서 공유는 이제 일상이야

완주에 공유의 물결이 일고 있다. 자기의 재능을 서로 주고 받을 뿐만 아니라 혼자의 힘으로 안 되는 모든 일들을 협력을 통해 일궈나가고 있다. 이 아름다운 문화가 점점 불붙기 시작했다.

서로 공유하는 모임 '끄트머리' 회원들은 작은 일상을 서로 전하면서 힘든 시기를 웃음으로 극복하고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다.

화산 병암마을에서 상담 전문가인 백형숙 씨 집에서 발달장애엄마모임을 열었다. 그곳에서 엄마들끼리 서로 아픈 마음을 달래며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양 해월리에 있는 하늘공방에서는 머리띠를 뜨개질을 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했다. 그 고마움에 고산도서관 정선옥 씨가 바나나 우유를 35명의 회원들에게 선물했다.

또, 어느 날은 완주군청의 '뽀빠이 공무원' 강평석 과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추억의 뽀빠이 과자가 먹



고싶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영 대표는 그 소식을 듣고 회원들에게 과자 두 박스를 보냈다. 그 과자는 곳곳에 전달되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아이들과 나누어 먹기도 하고 자원봉사회에서 함께 먹으며 이야기 꽃을 피우기도 했다.

우리는 인생을 혼자서만 살아갈 수 없다. 서로의 도움과 사랑으로 지탱하며 더 나아가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허진숙 마을기자(운주면 완창마을)

주민 재능공유 **최대 20만 원 지원**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센터장 문윤걸)에서 지원하는 '재능공유클럽 모두多클래스'가 3월 2일(화)부터 주민 참가신청 접수를 받는다.

'재능공유클럽 모두多클래스'는 자신이 지닌 재능을 원데이 클래스로 기획, 진행하며 일상 속에서 이웃과 취미, 취향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재능'공유를 통한 이웃 간의 일상 문화향유, 취향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되는 이 사업은 주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창구로서 문화를 기반으로 한 주민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추진과정을 간소화하여 문화사업 주체로 참여한 경험이 없는 주민이라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실제로 사업의 참여자는 초등학생부터 가정주부, 정년퇴직 후 귀촌한 장년층까지 면면이 다채롭다.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재능을 공유하고자 하는 주민에게는 최대 20만 원의 재료비를 지원한다. 특수한 기자재나 환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공간을 지원한다.

꽃 타령과 농사 준비

농/촌/별/곡



차 남 호

삼월, 바야흐로 봄이다. 이제는 누가 뭐래도 돌이킬 수 없는 계절, 봄날이 온 것이다. 어느 날 느닷없이 함박눈이 펑펑 쏟아진다 하더라도 봄은 봄인 것이지.

울안 잔디밭 한 켠에 서 있는 매화가 마침내 꽃을 피웠다. 바로 어제 일이다. 아침나절까지만 해도 반쯤 벙글었더니 해거름이 가까워 활짝 열어젖혔다. 그나마 딱 한 송이. 다닥다닥 맺힌 꽃망울들은 한창 부풀어 올랐다. 머잖아 앞 다퉈 피어나겠지.

봄은 꽃이다. 꽃부터 피고 새순이 돋아나는 건 그 다음이다. 한 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는 꽃들의 행진. 누구라도 어쩌지 못할 꽃 사태.

벙그러진 매화에 온통 마음을 빼앗겼나 보다. 앞뒤 잴 것도 없이 꽃 맞을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 가을, 서리를 맞히고서야 부랴부랴 줄기 채 갈무리해 둔 여러 가지 꽃씨를 털어 포트모판에 넣는 작업. 상토를 채우고, 물을 뿌리고, 씨를 넣고, 상토를 덮은 뒤 다시 물을 뿌리고 비닐하우스에 옮겨 두었다. 얼마 뒤 싹을 틔우고 줄기를 올려 자라난 뒤 한여름 무렵에야 꽃대를 올릴 화초들이다. 조바심치는 마음은 온통 그 맘 때 피어날 꽃으로 들어차 있다.

농사꾼 맞아? 완두콩, 강낭콩에 고추며 가지 씨를 묻어야 하는 때에 작물은 뒷전이고 꽃씨부터 챙기고 나선 꼴이라니.

이게 다 팬데믹 탓이다. '코로나블루'일 게 분명한 답답증에 희망이라도 찾을까 싶어 보름 전 경천 화암사에 다녀왔더랬다. 다행히 활짝 핀 복수초로 하여 그나마 위안을 얻었다. 그리고 우화루 앞뜰의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릴 무렵 다시 찾으리라 했었다.

기다리던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고는 하나 감염병 유행국면을 벗어나려면 아직 멀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고비를 이겨낼 에너지가 절실하고 싱그러운 봄기운은 그 점에서 더 할 수 없는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오늘 저도 모르게 화암사에 발길이 닿은 건 이런 까닭이리라. 늘 그렇듯이 이 잘 늙은 절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절간에 이르는 골짜기는 그사이 몰라보게 생기를 더하고 있었다. 말라 있던 계곡은 엊그제 내린 비로 졸졸졸 흘러내렸고 경칩 어름이라 여기저기 개구리 알이 실려 있다.

들머리 길섶, 고개를 살짝 내밀었던 복수초는 그새 짙푸른 잎이 무성하게 돋아나고 줄기도 성큼 자랐다. 새순만 올렸을까 싶었던 얼레지도 뜻밖에 연분홍 꽃잎을 피워 올려 그 요염한 자태를 뽐내고 있지 않은가.

우화루 앞 매화도 꽃망울을 터트렸다. 약간 부풀고 반쯤 벙그러지고 활짝 핀 꽃들이 마치 옥수수 튀밥을 흩뿌려 놓은 듯 물오른 가지를 수놓았다. 그 너머로 세월의 더께가 앉은 전각의 추녀가 아련하다.

오늘은 운이 좋았나. 적묵당 툇마루는 다행히도 텅 비어 있다. 다소곳이 걸터앉아 극락전과 우화루 사이로 펼쳐진 '선계의 풍광'에 넋을 잃고 빠져든다. 불명산 자락은 앙상한 수목으로 들어찼지만 솜털을 모아 놓은 듯 푸근하기만 하다. 뭉게구름 떠 있는 새파란 하늘이 휩싸고 돌며 사바세계의 모든 것을 빨아들일 기세다.

이렇게 봄날은 왔는데 무엇인가 껄적지근한 게 있다. 그래, 봄 타령 꽃 타령에 농사준비는 언제 할 텐가. 그러고 보니 코로나 핑계로 신선놀음하던 좋은 시절도 다 끝나가는 구나.

비봉 염암마을

마을소식

우리집에 온 새로운 식구



평소에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어 하던 아이들에게 좋은 소식이 생겼다. 한 달 전, 아는 지인으로부터 햄스터를 분양받아 새 식구가 생긴 것이다. 아이들은 첫날부터 기대감에 들떠 먹이를 주고 관찰하면서 신기해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메뚜기, 무당벌레, 장수풍뎅이를 잡아대던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햄스터의 이름은 '귀요미'다. 아이들과 함께 처음으로 키우는 애완동물이라 햄스터에 대해 하나씩 배워가고 있다. 잠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등 함께 이야기하면서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지켜본 결과, 평균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은 저녁 8시, 잠을 자는 시간은 아침 7시다. 그래서 저녁에 잠깐 밥을 주면서 겨우 만날 수 있었다. 현재 한 마리만 분양을 받았는데 임신기간이 20일 내외이고 생후 11주면 성숙한다는 정보가 있어 두 마리 이상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귀요미가 건강할 때까지는 다른 친구들을 데려오지 않을 예정이다.

함께 한지 한 달이 지난 현재 햄스터는 '귀요미'에서 '싹싹이'로 이름을 바꿨다. 밥을 남김없이 싹싹 비우는 것이 그 이유다. 햄스터의 평균 수명이 2~3년이라고 하는데 잘 키워서 오랫동안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다. 아이들이 수명이 다 하게 되면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는 생명의 순환을 햄스터를 통해 배워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강민수 마을기자(한국흙건축학교 사무국장)



완주마을이야기 완두콩
완주 CB공동체

- 발 행 미디어공동체 완두콩협동조합
- 편 집 인 이 용 규
- 주 소 55310 전북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854-7
- 대표전화 063-291-8448 팩 스 063-261-8448
- 홈페이지 www.wandookong.kr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완주,라00002 구독료 월 5,000원 후원 월 1만 원
독자기고 및 제보 toktok1942@hanmail.net

산속등대미술관 전시안내

산속등대미술관이 2021년 두 번째 기획전으로 '이종기 초대展'을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속등대미술관 제1전시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동서양의 문화 혼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팝아트적 요소로 대중들에게 호감과 공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종기 작가의 회화 작품 30여점으로 구성되었다. 이종기 작가의 친근하게 설정된 작품 속 하모니는 빠르게 격변하는 시대를 살며 평범한 삶이 오랜 과거가 되어버린 우리들의 일상에 소소한 즐거움과 경쾌한 위안의 시간을 제공한다. 섬세한 묘사와 팝아트적 요소로 대중적 공감능력이 탁월한 이종기 작가의 "건축" 모티브는 수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회동 한옥마을에서 한옥을 복원해 살던 그는 젊은이들과 종종 마주하며 건축물을 통해 한국의 근·현대가 어떻게 진화해 왔고, 발전에 따른 변화에 대해 간접화법으로 발현하고 있다.

작가는 우리나라 도시의 근·현대를 대표하는 관광 랜드마크와 문화유산을 모티브로 한 건축물에 슈퍼맨과 심슨가족을 소환하여 몽환적인 색채감의 독특한 구현은 건축물의 섬세한 묘사와 대조를 이루며, 과감한 배경 생략으로 활기를 불어 넣고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컬러의 이분법적 색채 균형은 건축물과 캐릭터를 동시에 극대화시키고 있다.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전시를 이어가고 있는 작가의 작품 소재의 스펙트럼은 전시를 개최하는 도시와 공간으로 확대되었다.



전시분야: *회화*
관람시간: *10:00~19:00*
주소: *완주군 소양면 원암로 82*
문의: *245-2456/ 070-4457-1301*
홈페이지: *sansoklighthouse.co.kr*

복합문화지구누에 전시안내

완주 방문의 해를 맞아 특별 기획전 '담다 展_그림 속 완주 이야기'가 3월 21일까지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지역 문화예술가 지원 사업으로 완주군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예술가 '행복을 그리는 화가 송지호와 버섯농부 화가 정철휘 두 작가의 지난 1년간의 작업을 선보이는 자리로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예술가의 시선으로 완주 구석구석을 화폭에 담은 30여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관람예약을 신청하자.

주소: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56-19*
문의: *246-3953*
홈페이지: *http://nu-e.or.kr/2021*

전북도립미술관 전시안내

'전북청년 2021展'은 전북의 미래를 일구어나갈 청년 미술가들의 작품 역량과 예술적 토대를 견고하게 다지기 위해 마련한 기획전이다. 2015년부터 매년 2~4명의 청년 작가 전시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하게 된 '전북청년 2021展'에는 강유진, 문채원, 쑨지 작가가 선정되었다. 이들은 모두 회화를 기반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오면서도 매체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다양한 실험정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시대적 상황에 대한 자기 인식과 작가적 질문들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주목받았다.

'신자연주의: 리좀이 화엄을 만날 때'는 과도한 장식성이나 해외에서 수입된 예술 개념에서 벗어나 한국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몸으로 감지하고 그것을 시각 언어로 풀어낸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 경향을 소개하고 있다. 기교나 관념의 유희가 아닌 삶을 온전히 살아낸 몸에서 나온 미술. 이러한 미술이 한국 미술계의 좁은 울타리를 넘어 인류 보편적 감동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미술이 과연 무엇인지, 작품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큐레이션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지역 미술실천의 중요한 대상인 지역적 풍경에 대해, 내면에서 연유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전북청년 2021	신자연주의 : 리좀이 화엄을 만날 때
전시기간	3월 5일 ~ 7월 25일	3월 12일 ~ 7월 25일
작품수	67점	34점
전시장소	제 2, 3, 4전시실	제 5전시실
전시분야	회화, 설치	동시대 한국미술
참여작가	강유진, 문채원, 쑨지	권순철, 서용선, 정복수, 강용면, 가나인
문의	290-6888	
주소	전북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111-6 (원기리 1068-7번지)	

'완주 방문의해' 관광사진 공모전

완주군이 '2021~2022 완주방문의 해'를 맞아 감성여행도시 완주관광 홍보를 위한 전국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9경9품5미5락을 비롯해 자연경관, 문화유적, 지역축제 등 완주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고 생활 속 관광자원을 발굴해 향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 마련됐다.

완주군의 관광자원을 소재로 한 것이면 연령과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접수는 11월 3일까지 한국사진작가협회 완주지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공모전 내용은 완주군청 홈페이지와 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완주군은 주제 적합성, 창의성, 홍보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금상 1점(상금 150만원)을 비롯해 최종 71점의 작품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으로 향후 공모전 작품 전시회를 통해 대외적으로 완주를 널리 알리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문의: *290-3941*
메일주소: *wanjuphoto@daum.net*

농촌 주거환경 업그레이드

완주군이 정주여건 개선,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 주택은 연면적 150㎡ 이하인 주택이다. 사업대상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근로자 복지를 위해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 및 농업인이 해당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이며, 담보물(토지, 주택)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고정금리 연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30%의 감면 혜택이 있으며, 건축공사 완료 후 최대 28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현재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업신청을 받고 있으며, 군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오는 3월 중순까지 확정해 12월말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290-2873*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완주군이 생계형 노후경유차 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완주군은 관내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1톤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게 400만원을 총 40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대상은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말소 또는 신차로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 구매 시기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등 적극 사업신청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교체할 경우 LPG차 신차구입 지원 보조금 400만원과 함께 조기폐차 보조금도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노후화물차 교체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정방법은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한 경우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차량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된다. 신청은 오는 3월 12일까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환경과를 통해 접수하며 자세한 사업안내는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290-2664*

모악산 등산로의 변신

완주군이 모악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완주군은 모악산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을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모악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착수했다. 올해 등산로 정비사업으로는 낙석 및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구간 안전확보용 계단 데크와 타이어매트를 설치하고 등산객 비상상황 대피용 안전쉘터 및 휴식제공을 위한 쉼터(퍼걸러)를 조성한다. 또한, 긴급상황 및 등산로 현황알림 LED 전광판 설치, 안전보행로 확보를 위한 야자매트 설치, 등산로안내판 및 이정표 정비 등을 실시해 등산객의 안전산행을 위한 시설물 정비사업도 진행한다. 완주군은 등산로 정비사업을 통해 모악산을 찾는 탐방객에 안전산행을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주민에 힐링공간 및 쉼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290-2752*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연장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시간을 연장 운영한다.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평일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신속한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전예약제를 운영함으로써 많이 이용하는 농기계의 중복을 사전에 조율, 농가들의 임대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임대료 50% 감면 정책도 오는 6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완주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현재 고산(본소), 삼례(서부), 구이(남부)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소양(동부) 임대사업소는 3월 중순에 개소,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군은 신규 임대사업소 운영으로 소양, 용진, 동상 일대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290-3278*

동양고전 인문학당 학습자 모집

'동양고전 인문학당' 수강생을 모집한다. 동양고전을 통해 군민의 건강한 정신을 완성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완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수업은 3월 16일(화) 개강을 시작으로 6월 29일까지 16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용진서원에서 진행된다. 강사는 최영찬 명예교수(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를 비롯한 7명의 국내 전·현직 교수로 구성됐다. 교육과정은 논어, 맹자 등 동양고전을 통해 동양사상과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주역(周易) 등 동양고전으로 마음 다스리는 법을 중점적으로 강의한다. 수강생 모집은 오는 3월 12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진행되며, 수강을 원하는 주민은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아래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주소: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지암로 61*
문의: *290-2638(접수문의)/ 252-2545(수업문의)*
메일주소: *yoosaea@korea.kr*

음식과 함께한 당신의 이야기 공모전

오뚜기에서 제1회 '푸드 에세이 공모전'을 개최한다. 주제는 음식과 관련된 일상 속의 모든 경험, 특별한 순간, 가족과 함께 했던 기억에 남는 음식과 추억 이야기 그 외 다양한 음식과 관련 이야기다. 음식과 관련하여 특정브랜드에 국한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작성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2월 22일부터 4월 12일 24시까지고 결과발표는 2021년 5월 5일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수상자 발표 및 수상자 개별 연락 예정이며 모든 수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반드시 시상식에 참여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574-3016*
메일주소: *foodessay@detizen.com*
홈페이지: *http://www.ottogi.co.kr/*

청년 정책 온라인 플랫폼 구축

완주군이 청년 지원 사업을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청년메카완주 온라인청년센터'를 구축했다. 청년 정책 온라인 플랫폼인 '청년메카완주 온라인청년센터'는 지난 2020년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여 청년 참여 예산을 통해 마련되었는데, 이제는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청년과 관련된 일자리 및 주거, 참여, 문화, 교육, 복지 등 6개 분야의 37개 사업이 통합 안내된다.

홈페이지: *https://youth.wanju.go.kr*
문의: *290-3237*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완주군에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전기·수도·수도 등 기술 분야 2명, 소농·고령농·사회적농장 등 농업지도 분야 4명 모두 6명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소지가 완주군 주민으로 등록된 자 가운데,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이여야 하고 신체가 건강하며 근무 시 사명감, 책임감,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자다. 관심 있는 자는 3월 15일까지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아래 번호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주소: *완주군 삼례읍 삼례나들목로 338-33*
문의: *905-5050*
메일주소: *i-emida@hanmail.net*

완주군,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모집!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 미취업자 및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5개 과정 훈련생 75명을 모집한다. 모집 교육과정은 치매예방 실버인지관리지도사와 효지도사 인성교육 강사 양성 과정, 생산제조품질검사원 양성과정, 푸른 숲 정원사 양성과정, 창업지원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쇼핑몰 창업과정 등 총 5개 과정이다. 교육비는 자비 부담금 5만원이며 교육 과정 수료 시 전액 환급된다. 특히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있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온라인 마케팅 교육과 쇼핑몰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여성 4060세대의 재취업을 위한 전문가 자격취득과정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을 통한 취업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직업교육신청은 완주여성새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구비서류를 지참해 완주군일자리지원센터를 방문해 접수 가능하다.

주소: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94 3층*
문의: *290-3929/ 262-1780~6(직업교육 신청)*
홈페이지: *http://www.wanjusaeil.or.kr/*

낡고 방치된 빈집 정비

완주군이 오랜 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완주군은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공익상 유해한 빈집 정비를 위해 2021년도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건축물의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반지붕 건축물은 최대 150만원,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초과금액은 자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의 경우 환경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최대 344만원)과 연계가 가능하며, 연계 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완주군은 현재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업신청을 받고 있으며, 빈집 정비사업 대상자를 오는 3월 중순까지 확정해 11월말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290-2873*

술테마박물관 3월 체험일정 안내

완주술테마박물관의 3월 발효체험 일정을 공개한다. 체험은 매주 주말 오후 2시 30분에 12명 이내(한 가족당 4명 이내)로 진행된다. 체험비는 5천원이고 체험 전일 오후 3시까지 접수 받는다.

체험일정: *6,7일 초코쿠키 / 13,14일 우유머핀 / 20,21일 치즈쿠키 / 27,28일 단팥발효빵*
주소: *완주군 구이면 덕천전원길 232-58*
문의: *290-3847*
메일주소: *http://sulmuseum.kr*

국립공원 탐방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국립공원공단에서 제1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 '2021년 국립공원 탐방서비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국립공원에서 제공받고 싶은 새로운 탐방서비스나 코로나 일상, 탄소중립과 관련한 새로운 탐방서비스를 주제로 A4 규격으로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3월 31일 18시까지 아래 메일주소로 접수하면 된다. 단, 팀참가는 불가하니 잘 기억하도록 하자.

메일주소: *knps7777@knps.or.kr*
문의: *033-769-9575*

꽃으로 마음을 전하세요 UCC공모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꽃으로 마음을 전하세요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꽃으로 마음을 전하는 영상을 4월 1일부터 5월 31일 18시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5인 이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출품규격은 3~5분 이내의 숏폼 영상으로 용량 300MB이내, 직접 기획·제작한 영상물이어야 한다. 또한 한 명(팀)당 최대 3작품까지 출품 가능하지만 최고점 한 작품만 시상 받게 된다.

문의: *02-6953-1410*
메일주소: *heartflower@contestweb.net*

완두콩 마을기자 모집

완주 곳곳 마을소식 전할 사람 손~! 글 아주 잘 쓸 필요 없고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 남녀노소 누구나 대환영이다. 기사가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다양한 소식들을 완두콩에 싣고 싶은 사람은 어서 참여해보자!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854-7*
문의: *291-8448/ 010-9227-7059*
메일주소: *toktok1942@hanmail.net*

집수리 해드립니다

완주시니어클럽



대상가정	집 수리 도움이 필요한 **노인가정**
활동시기	3월~11월 (평일)
수리범위	방충망수리, 도배, 페인트, 타일, 기타 (지붕수리, 수도 등)
비 용	재료비 (본인부담)
신청방법	완주시니어클럽 **봉동사무실(063-261-4288)**
	완주시니어클럽 **고산사무실(063-261-4482)**

※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수리 가능한 지 봐드립니다.



농민과 함께하는 삼락농정

모두가 풍요로운 농업·농촌 農도피아 완주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

2021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60만원 (가구당)

1 신청기간 **2021. 2. 1. ~ 4. 30.**

2 신청자격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에 주소와 농어업 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양봉농가)**

3 지원금액 **농어가당(가구당) 연 60만원 지급**
연 1회, 지역상품권(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4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

5 지원절차 **2월~4월 접수 ⇒ 5월~8월 자격검증 ⇒ 9월~10월 지급**